

『新刊惠民御藥院方·痰飲門』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 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²
엄동명^{1, 2} · 송지청¹ · 금경수^{1, 2*}

A Study on *DamEum*(*Phlegm-fluid retention*) in *Shingan Hyemin Eoyakwonbang*(新刊惠民御藥院方)

Eom Dong-myung^{1, 2} · Song Ji-chung¹ · Keum Kyung-soo^{1, 2*}

¹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 : *Yayaoyuanfang*(御藥院方) is a prescription book, compiled by Xu Guozhen(許國楨) in 1267. *Yayaoyuanfang* was published in Chosun dynasty as named as *Singan Hyemin Eoyakwonbang*. Therefore, we have interests in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ose two books.

Method : We try to analyze two texts' differences by physical bibliography and comparing contents only in *DamEum*.

Result : Those differences are the name, order, materia medica, effects, medicine dose, how to use and medicine processing of prescriptions.

Conclusion :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Yayaoyuanfang* and *Singan Hyemin Eoyakwonbang*. However, *Singan Hyemin Eoyakwonbang* is not a full text so far, we need continuous studies on *Yayaoyuanfang* and *Singan Hyemin Eoyakwonbang*.

Key words : *Yayaoyuanfang*(御藥院方), Xuguozhen(許國楨), *Singan Hyemin Eoyakwonbang*(新刊惠民御藥院方), *DamEum*, Phlegm-fluid retention.

I. 序 論

『御藥院方』¹⁾은 元代 許國楨의 著書로 中國皇室의 의약기관인 御藥院의 處方을 수록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御藥』이 朝鮮에 流入되었다고 하며²⁾, 金斗鐘도 『韓國古印刷技術史』에서 朝鮮 明宗

* 교신저자 : 금경수.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한 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kskeum@wku.ac.kr Tel: 063-850-6847

Fax: 063-842-4328

접수일(2012년 10월 17일), 수정일(2012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2012년 11월 16일).

1) 書籍의 卷首題와 裏題는 『癸巳新刊御藥院方』으로 되어 있으나 版心題는 『御藥院方』으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후 簡稱하여 『御藥』이라 하였다.

代에 『御藥』이 出刊되었다고 하였다.³⁾

『御藥』에 관심을 가지고 研究를 하던 중, 朝鮮에서 出刊한 『御藥』이 延世大學校 學術情報院에 『新刊 惠民御藥院方』(이하 『惠民御藥』이라 함)이란 명칭으로 存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御藥』의 形態書誌學에 대한 간략한 比較와 더불어 주되게 「痰飲門」을 중심으로 내용을 考察할 것이고, 『御藥』의 刊行과 相關된 研究는 추후 다룰 예정이다.

II. 本 論

1. 形態書誌學的 차이

研究의 底本으로 삼은 『御藥』과 『惠民御藥』은 다음과 같다.

『御藥』: 日本 精思堂本 刊寫年1798年

四周單邊 半郭 21 x 15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內向黑魚尾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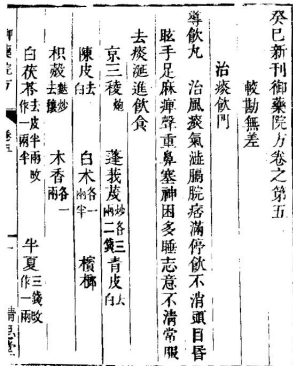


그림 1. 『御藥院方痰飲門』

『惠民御藥』: 延世大學校 所藏 金屬活字本(乙亥字)⁴⁾ 刊寫年未詳

2) 周益新. 『御藥院方』研究. 山西中醫. Shanxi J. of TCM 2007. 23(1). p.55.

3)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81. p.180.

4) 2冊6卷을 所藏하고 있는데 第1冊은 卷六「一切氣疾下」, 卷七「痰飲門上」, 卷八「痰飲門下」가 있으며, 第2冊은 卷十八「瘡腫折傷門」, 卷十九「婦人諸疾門」, 卷二十「小兒諸疾門」

四周單邊 半郭 22.1 x 14.9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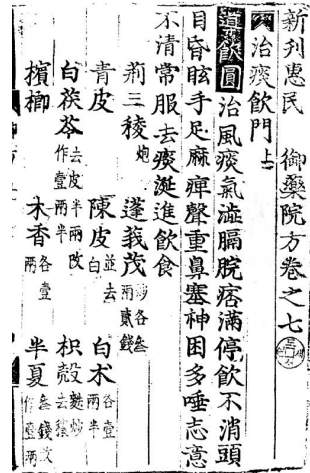


그림 2. 『惠民御藥痰飲門』

『御藥』은 총 卷十一로 되어 있으며 그 중「痰飲門」이 卷五에 해당하는데, 『惠民御藥』은 「痰飲門」이 卷七에 해당된다. 『御藥』에는 「一切氣門」이 卷四이고, 「痰飲門」이 卷五이며, 「婦人諸疾門」과 「小兒諸疾門」이 합하여 卷十一인데 반하여, 『惠民御藥』에는 「一切氣疾下」가 卷六⁵⁾이고, 「痰飲門」은 上下로 나뉘어 卷七, 卷八이며, 「婦人諸疾門」과 「小兒諸疾門」이 각각 卷十九와 卷二十으로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측해 보면 『惠民御藥』은 『御藥』과 달리 분량이 많은 門인 경우는 上下 2卷으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총 20卷으로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惠民御藥』은 『御藥』과는 다르게 특이하게도 版心에 주로 보이는 上內向三葉黑魚尾를 이용하여 門을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2. 편제와 내용 차이

2-1. 處方 名稱이 다른 경우

處方名은 대부분 『御藥』과 『惠民御藥』이 동일하지만, 유독 ‘丸’으로 되어 있는 處方名稱은 모두 『惠民御藥』이 있다.

5) 미루어 「一切氣疾上」이 卷五임을 추측할 수 있다.

民御藥』에 ‘圓’으로 되어 있다. 단, 大人參半夏散의 경우 處方名이 ‘散’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丸’⁶⁾이어서 原著의 誤記로 생각되는데, 『惠民御藥』에는 ‘大人參半夏圓’으로 표기하여 丸으로 인지하였다. 또한 細辛五味湯은 ‘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惠民御藥』에 ‘細辛五味圓’으로 되어 있다.

2-2. 處方 順序가 다른 경우

處方順序는 『御藥』과 『惠民御藥』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同名의 處方이 있는 경우 『惠民御藥』에는 ‘又方’으로 표시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處方들을 모아서 나란히 기록하였다. 半夏利膈圓⁷⁾, 開結枳實丸⁸⁾, 潤肺丸⁹⁾, 藿香散¹⁰⁾, 安眠散¹¹⁾, 款冬花散¹²⁾, 法製溫半夏¹³⁾ 總 7개 處方이 그러하다. 단, 導飲圓¹⁴⁾과 白雪圓¹⁵⁾¹⁶⁾의 경우 同名의 處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又方’을 이용하여 處方의 順序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는 『惠民御藥』이 同名이지만 다른 處方의 경우는 ‘又方’을 표시하여 혼동을 피하고, 同名의 같은 處方의 경우는 그대로 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御藥』에는 處方중에 大半夏丸 - 白雪丸 - 木香半夏丸 - 小半夏丸의 順序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惠民御藥』에는 이 부분이 大半夏圓 - 小半夏圓 - 木香半夏圓 - 白雪圓의 順序로 나온다. 이는

- 6) 服用法이 ‘右爲細末 麵糊爲丸 如小豆大 每服三十丸 食後生薑湯下 日進三服 溫水 冷水下亦得’으로 되어 있어 大人參半夏丸이 더 타당하다.
- 7) 半夏利膈圓과 그 又方은 同名이지만 다른 處方이다.
- 8) 開結枳實圓에는 없고 開結枳實圓의 又方 있던 藥物 旋覆花를 開結枳實圓의 말미에 ‘或加旋覆花’로 표시하여 그 又方의 處方을 참고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9) 潤肺圓과 그 又方은 同名이지만 다른 處方이다.
- 10) 藿香散과 그 又方은 同名이지만 다른 處方이다.
- 11) 安眠散과 그 又方은 同名이지만 다른 處方이다.
- 12) 款冬花散과 그 又方은 同名이지만 다른 處方이다.
- 13) 法製溫半夏와 그 又方[法製溫半夏가 아니라 法製半夏이임]은 同名이지만 다른 處方이다.
- 14) 두 번 기록된 導飲圓은 處方構成에서도 동일한 處方이다.
- 15) 두 번 기록된 白雪圓은 뒤의 處方이 川烏頭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同一한 處方이다.
- 16) 뒤에 기록된 白雪圓은 『御藥痰飲門』의 후반부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惠民御藥』에는 「痰飲門」上으로 옮겨졌다.

大半夏圓 다음에 小半夏圓을 배치하여 大와 小의 順序를 지키고자 함이었다고 생각된다.

2-3. 處方 效能 主治가 다른 경우

處方의 效能, 主治의 內容이 『御藥』과 『惠民御藥』이 다른 경우가 있다.

止口逆圓의 경우 『御藥』에는

治停寒積飲 嘔吐痰水 無問冷熱不可食者 服之必愈

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治停寒積飲 嘔吐痰水 無問冷熱不下食者 服之必愈

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開結枳實圓의 경우 『御藥』에는 ‘宣導凝滯 消化痰飲 (中略) 咽嗝不利 上氣咳嗽等’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上氣咳嗽等’ 뒤에 ‘疾’자가 추가되어 있고, 大人參半夏圓의 경우 『御藥』에는 ‘化痰墜涎 (中略) 調和臟腑 消進飲食’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消’가 ‘美’로 되어 있으며, 玉芝徐老圓의 경우 『御藥』에는 ‘除風壅消痰 利咽膈 美飲食’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美飲食’이 ‘進飲食’으로 되어 있고, 平肺散의 경우 『御藥』에는 ‘治久咳嗽神功’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治久年咳嗽神功’으로 되어 있으며, 白金散의 경우 『御藥』에는 ‘清利肺 能下痰 止煩渴’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서는 ‘煩渴’이 ‘煩惱’로 되어 있고, 法製溫半夏의 경우 『御藥』에는 主治, 效能에 해당되는 內容이 없으나 『惠民御藥』에는 法製溫半夏의 又方으로 다루면서 法製半夏에 있는 主治, 效能을 그대로 옮겨서 記錄하였다. 法製溫半夏는 法製半夏와 다른 處方임에도 불구하고 法製半夏의 主治를 옮겨 똑같이 기록한 것이 특이하다.

2-4. 處方의 服用法이 다른 경우

『御藥』에는 服用法에서 ‘右’字 다음에 藥물의 갯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惠民御藥』에는 대부분

‘右’字 다음에 약물의 가짓수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御藥』의 柴胡飲子和 같은 경우 服用法이

右剉如麻豆大 每服秤五錢 水一盞半 入生薑五片棗一枚 同煎至八分 去滓溫服 不拘時候

으로 되어 있는데 『惠民御藥』의 柴胡飲子

右件七味剉如麻豆大 每服秤五錢 水一盞半 入生薑五片棗一枚 同煎至八分 去滓溫服 不拘時候

로 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惠民御藥』이라 하더라도 「痰飲門上」卷七에서는 모두 이렇게 약물의 가짓수를 기록해 놓았으나, 「痰飲門下」卷八에서는 『御藥』과 마찬가지로 약물의 가짓수에 대한 기록이 없다. 『惠民御藥』 「一切氣疾下」卷六에서도 「痰飲門上」卷七과 마찬가지로 약물의 가짓수를 기록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惠民御藥』을 出刊하면서 卷七까지는 處方의 藥物數를 記錄하였으나 이후는 記錄하지 않았다는 성급한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추후 『惠民御藥』의 전체 모습을 살펴본 이후라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處方 服用 설명 中 服用시기와 관련된 ‘食後’와 ‘食前’ 등의 用語가 등장하는데, 『御藥』이 규칙 없이 記錄된 사실과 달리 『惠民御藥』에는 ‘下’, ‘服’ 등과 같은 服用行爲 用語 앞에 기록하여 차이가 있었다. 『御藥』 參蘇半夏湯 服用法의 경우

右爲麤末 每服五錢 水一大盞半 入生薑一十片 同煎至八分 去滓 溫服 食後

로 되어 있는데, 『惠民御藥』에는

右件十味爲麤末 每服五錢 水一大盞半 入生薑一十片 同煎至八分 去滓 食後 溫服

으로 되어 있어, ‘食後’가 ‘溫服’의 ‘服’ 앞에 기록

되어 있다. 이는 추측컨대 『惠民御藥』을 出刊하면서 服用法 內容을 우리말 順序대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御藥』에는 服用時 時間과 무관하다는 의미의 ‘不拘時候’란 用語를 사용하였는데, 『惠民御藥』에 ‘食前’과 ‘食後’가 服用行爲 用語 앞으로 간 것과는 반대로 모두 뒤에 기록하였다. 『御藥』 木香半夏丸의 경우

右件爲細末 用麪糊和丸 如梧桐子大 每服二三十丸 不拘時候 煎生薑湯下

로 되어 있는데, 『惠民御藥』 木香半夏丸에는

右件八味爲細末 用麪糊和丸 如梧桐子大 每服二三十丸 煎生薑湯下 不拘時候

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특이한 점은 『惠民御藥痰飲門上』卷七에는 ‘食前’과 ‘食後’ 그리고 ‘不拘時候’가 모두 服用行爲 用語의 앞과 뒤에 규칙성을 가지고 記錄되어 있으나, 「痰飲門下」卷八에는 『御藥』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 또한 추후 『惠民御藥』의 전체 모습을 살펴본 이후라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2-5. 藥物 名稱이 다른 경우

處方의 藥物에 있어서 『御藥』과 『惠民御藥』이 다른 경우가 있다. 導飲丸과 滌痰丸의 경우 『御藥』에는 京三稜이라 하였는데 『惠民御藥』에는 荊三稜으로 되어 있으며, 辰砂利痰丸의 경우 『御藥』에는 麥蘗이라 하였는데 『惠民御藥』에는 麩蘗으로 되어 있고, 化痰鐵刷丸의 경우 『御藥』에는 礪砂라 하였는데 『惠民御藥』에는 礪砂로 되어 있다. 『御藥』의 人參補肺散 中 山梔子仁, 藿香散과 木香半夏丸의 草豆蔻仁, 瀉肺湯의 杏仁, 丁香半夏湯의 肉荳蔻仁과 같은 경우 『惠民御藥』에는 각각 山梔子人, 草豆蔻人, 杏人, 肉荳蔻人으로 되어 있고, 卷七에서는 그렇지 않으나 卷八에서는 處方藥物로 언급된 生薑, 乾薑이 대부분 生薑, 乾姜으로 되어 있다. 기타 潤肺丸의 半夏曲과

瓜蒌가半夏麴과 苧蕒로 되어 있고, 白金散의 紫蘇葉이 紫蘇로 되어 있으며, 天門冬丸의 桑根白皮와 五味子是 桑白皮와 吾味子로 되어 있고, 梅靑丸의 消石은 硝石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藥物名稱에 있어서 『御藥』과 『惠民御藥』의 글자를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서로 다른 경우 『惠民御藥』이 주로 異名을 이용하였다. 本草에 있어 異名을 이용한 경우 避諱를 위한 경우가 많아 『惠民御藥』에도 避諱 때문에 異名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고려해볼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研究되어야 한다.

2-6. 藥物 順序가 다른 경우

處方の 藥物 順序도 『御藥』과 『惠民御藥』이 일부 차이가 있다. 半夏利膈丸을 예로 들어보면, 『御藥』에는

白朮 人參 白茯苓去皮 白礬生 滑石 貝母各
一兩 天南星生用 一兩半 白附子生 二兩 半夏湯洗 三兩

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서는

半夏湯洗 三兩 白附子生 二兩 天南星生用 一兩半
白茯苓去皮 白朮 人參 白礬生 滑石 貝母各一兩

으로 되어 있어, 處方 藥物의 量數에 따라 배치하였다.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處方 藥物의 순서가 바뀐 모든 경우에 대해 藥量에 따라 배치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경향이 그러함을 발견하였다. 특이한 점은 『惠民御藥痰飲門上』인 卷7에는 56개 處方 中 31개 處方¹⁷⁾ 藥物의 順序가 『御藥』과 차이가 있었으나, 『惠民御藥痰飲門下』인 卷8에는 48개 處方 中 단지 4개 處方¹⁸⁾ 藥物

의 順序만 차이가 있었다.

한편, 『惠民御藥痰飲門』에는 御米穀이 총 6개 處方에서 사용되었는데, 1개 處方¹⁹⁾을 제외하고는 모두 各行의 제일 첫머리에 두어 ‘御’字가 가지는 의미를 重視한 것이 아닌가 한다.

2-7. 處方藥物의 用量이 다른 경우

處方藥物의 用量表示는 『御藥』과 달리 『惠民御藥』에는 一을 壹로, 二를 貳로, 三을 參으로, 四를 肆로, 五를 伍로, 六을 陸으로, 七을 柒로, 八을 捌로, 九를 玖로, 十을 拾으로 標記하였다.

한편 處方藥物의 用量에 있어서 『御藥』과 『惠民御藥』이 다른 경우도 있다. 賺氣散의 甘草와 桔梗은 『御藥』에는 各一兩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各貳兩으로 되어 있고, 貝母湯의 杏仁은 『御藥』에는 三分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參兩으로 되어 있으며, 大半夏圓의 郁李仁은 『御藥』에는 二兩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壹兩으로 되어 있고, 沈香湯의 桑白皮는 『御藥』에는 一兩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貳兩으로 되어 있으며, 紫參圓의 紫參 甘草 桔梗은 『御藥』에는 各二兩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各壹兩으로 되어 있고, 消飲白朮圓의 乾薑은 『御藥』에는 三兩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貳兩으로 되어 있으며, 人參前胡散의 前胡 人參 紫蘇葉 赤茯苓은 『御藥』에는 各一分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各貳兩으로 되어 있고, 鑄飲枳實圓의 黑牽牛는 『御藥』에는 二兩²⁰⁾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參兩으로 되어 있으며, 沈香墮痰圓의 木香은 『御藥』에는 二分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貳錢으로 되어 있고, 紫金散의 烏梅는 『御藥』에는 一兩으로 되어 있으나 『惠民御藥』에는 貳兩으로 되어 있다.

『惠民御藥』에 用量 標記를 ‘壹貳參肆伍陸柒捌玖

17) 導飲圓 I, 半夏利膈圓, 半夏利膈圓의 又方, 紫蘇半夏湯, 大半夏湯, 賺氣散, 寧神圓, 祛風圓, 人參補肺散, 貝母湯, 開結枳實圓, 開結枳實圓의 又方, 神應丹, 肺潤圓의 又方, 藿香散, 藿香散의 又方, 大人參半夏圓, 蛤蚧膏, 十珍餅子, 白雪圓 I, 木香半夏圓, 小半夏圓, 沈香湯, 玉芝徐老圓, 導飲圓 II, 安眠散, 安眠散의 又方, 人參圓, 鍾乳補肺湯, 蘆筒散, 白雪圓 II

18) 異功圓, 辛夷湯, 乳香半夏圓, 暖胃湯

19) 御米穀을 行의 앞으로 기록한 處方 5개는 卷七에 있고, 나머지 1개는 卷八에 있다.

20) 『御藥』에 二로 되어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二字의 간격이 다른 二字의 경우와 달리 간격이 좁으며, 또한 아래 一이 위의 一보다 좌우가 짧기 때문에 三의 아래 一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三이라면 이 경우는 藥量의 용량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拾'으로 표기한 것은 用量表示의 誤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用量 標記에 있어 『御藥』과 다른 경우는 실제 運用에 있어서 타당한 用量²¹⁾으로 標記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8. 處方藥物의 炮製法이 다른 경우

『御藥』과 『惠民御藥』의 處方藥物에 대한 炮製法이 다른 경우가 있다. 『御藥』藿香散 又方の 厚朴은 去皮하고 甘草는 炙한다고 하였으나 『惠民御藥』에는 炮製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으며, 『御藥』蛤蚧膏의 艾葉은 炮한다고 하였으나 『惠民御藥』에는 炮製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다. 이와 반대로 『御藥』天門冬丸의 貝母는 炮製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으나 『惠民御藥』에는 煨去心한다고 하였다.

또한 『御藥』白雪丸의 半夏는 洗한다고 하였으나 『惠民御藥』에는 洗炒한다고 하였고, 『御藥』紫團參丸의 蛤蚧는 酥炒한다고 하였으나 『惠民御藥』에는 酥炙한다고 하였으며, 『御藥』龍膽丸의 白礬은 燒沸定한다고 하였으나 『惠民御藥』에는 澆沸定한다고 하였고, 『御藥』除痰丸의 天南星은 炒한다고 하였으나 『惠民御藥』에는 炮한다고 하였다.

『御藥』의 炮劑法과 『惠民御藥』의 炮劑法 差異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우선 너무 一般的이라서 생략한 경우, 臨床上 더 타당한 炮劑法으로 標記한 경우 등을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惠民御藥』을 전면모를 考察하여 炮劑法 差異의 규칙성 등을 研究해야 명확한 推論이 가능하다.

Ⅲ. 考 察

元代 御藥院의 處方集인 『御藥院方』은 朝鮮에 유입되어, 明宗代 出刊되었다고 하는데, 明宗代 出刊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기는 하지만 延世大學校에 『

新刊惠民御藥院方』이라는 名稱으로 國內에서 刊行된 『御藥院方』이 存在한다.

痰飲門을 중심으로 『御藥院方』과 『新刊惠民御藥院方』을 比較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惠民御藥』의 處方名稱은 『御藥』의 것과 차이가 있는데, 모든 丸이 圓으로 되어 있으며, 散이라도 내용상 丸인 경우도 圓으로 되어 있다. 또한 湯임에도 圓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한 건 있다.

2. 處方配列 順序에도 차이가 있다. 同名의 같은 處方은 『御藥』의 경우와 같지만, 同名의 다른 處方은 처음 등장한 處方 다음에 '又方'을 표기하고 한 곳에 모아 기록하여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處方藥物의 順序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御藥』에는 分量과 상관없이 羅列되어 있는 것과 달리 『惠民御藥』에는 處方藥物의 量數에 따라 配列하였다. 특이한 점은 『惠民御藥痰飲門上』 卷七에는 56개 處方 中 31개 處方의 藥物 順序가 바뀌어 있으나, 『惠民御藥痰飲門下』 卷八에는 48개 處方 中 단지 4개 處方만 藥物 順序가 바뀌어 있다. 한편, 『惠民御藥痰飲門』에 사용된 御米殼은 6개 中 5개가 모두 各行의 제일 첫머리에 두어 '御'字가 가지는 의미를 重視하였다고 판단된다.

4. 處方의 效能, 主治가 다른 경우도 있다. 글자의 추가 혹은 삭제 등이 대부분이었고, 內容上 차이 나는 부분은 없었다. 단, 又方을 기록한 경우 앞의 處方에 效能, 主治 內容이 없는 경우 다른 處方임에도 불구하고 又方의 效能, 主治를 앞으로 가져온 경우도 있었다.

5. 處方 藥物의 글자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異名을 사용하였다. 또한 卷七에서는 生薑, 乾薑으로 기록하였는데 卷八에서는 대부분 生薑, 乾姜으로 기록하여 다른 글자를 사용하였다.

6. 處方藥物의 用量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惠民御藥』에는 용량표기를 할 때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을 사용하지 않고 '壹貳參肆伍陸柒捌玖拾'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또한 『御藥』과 『惠民御藥』의 用量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21) 앞서 언급한 것처럼 人參前胡散의 前胡 人參 紫蘇葉 赤茯苓은 『御藥』에는 各一分으로 『惠民御藥』에는 各貳兩으로 되어 있다. 人參前胡散의 處方構成上 一分은 너무 적은 分量임을 알 수 있는데, 『惠民御藥』은 이를 貳兩으로 標記하여 적정량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개 使用上 타당한 分量으로 標記한 경우라 판단된다.

7. 藥物의 炮製法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너무 一般의이므로 標記하지 않거나 藥物使用의 목적에 맞도록 標記한 것으로 판단된다.

8. 服用法 記錄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惠民御藥』에는 『御藥』과 달리 服用法 제일 처음에 藥物數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食前’, ‘食後’ 등과 같은 服用時間에 관한 用語들을 ‘下’, ‘服’ 등과 같은 服用行爲 用語의 앞에 記錄하였고, ‘不拘時候’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服用行爲 用語 뒤에 記錄하였다. 단, 卷七에만 이런 모습을 보이고 卷八에서는 『御藥』과 차이가 없었다.

考察을 통해 『惠民御藥』의 特徵들을 살펴 보았다. 특히 卷七과 卷八은 같은 「痰飲門」이지만 卷七에는 服用法에 藥物數를 記錄하고 있다는 점, 卷七에서 주로 處方構成藥物을 달리 했다는 점, 生薑, 乾薑이 卷七의 경우와 달리 卷八에서는 간략하게 生姜, 乾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卷七에서만 服用時間과 服用方式을 우리말 순서에 맞추었다는 점 등 卷七과 卷八이 확연히 구분되는 점들이 있었다.

IV. 結 論

『御藥院方』은 근래에 잘 알려지지 않은 書籍이나, 朝鮮에 流入된 후 『醫方類聚』와 『東醫寶鑑』에도 그 內容이 수록되어 있는 만큼 韓國醫學史에는 意味 있는 書籍이다. 이번 研究를 통해 元代의 『御藥院方』이 단순히 朝鮮에 流入된 것만이 아니라 國內에서 다시 出刊하였으며, 이 國內 出刊本이라 생각되는 『新刊惠民御藥院方』의 實물을 접할 수 있었다. 이 중 「痰飲門」을 중심으로 『御藥遠方』과의 形態書誌學的 比較, 편제 및 內容에 대한 比較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 『新刊惠民御藥院方』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御藥院方』과 전면적인 比較研究 進行되었으면 한다.

感謝의 글

본 論文은 2011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열람과 복사를 허락해준 延世大學校 學術情報院에 感謝드립니다.

參考文獻

1. 周益新. 『御藥院方』研究. 山西中醫. Shanxi J. of TCM 2007. 23(1). p.55.
2.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81. p.180.
3. 許國楨. 癸巳新刊御藥院方. 精思堂本. 1798.
4. 許國楨. 御藥院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5. 許國楨. 新刊惠民御藥院方. 延世大學校 所藏本.

